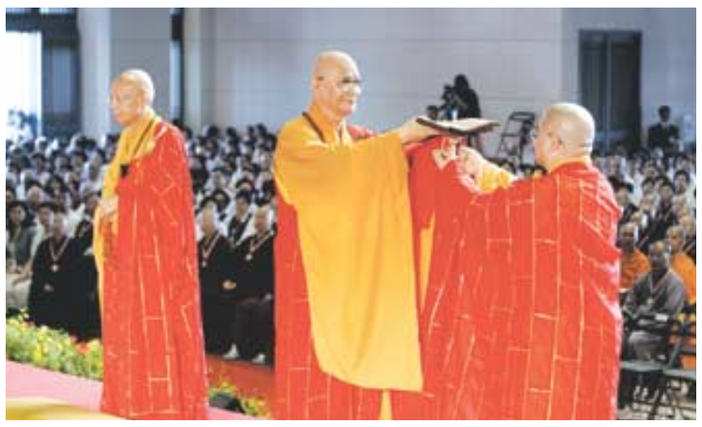
‘법 그릇’ 크기에 나이는 ‘불문’

대만 법고산 제2대 방장에 52세 궈똥(果東) 법사 취임

궈똥 법사


궈똥 법사(맨 오른쪽)가 방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사와 108염주, 법고산 승단조직도, 성옌 법사의 지도방침서를 받고 있다.

대만불교계의 4대 산맥인 법고산 2대 방장에 세수 50대의 궈똥(果東) 법사가 선출됐다.

법고산(法鼓山) 승단은 9월 2일 타이페이 시 교외 베이토우(北投) 법고산세계불교교육원 대전에서 성옌(聖嚴) 법사, 성령사 진넝(今能) 법사, 쏭쭈오(送座) 화상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방장 이·취임 법회를 열고, 출가한 지 12년 된 궈똥 법사를 법고산의 새 방장으로 추대했다.

세탑 52세에 불과한 신임 방장 궈똥 법사는 37세 때 늦깎이로 성옌 법사를 은사로 출가한 중진스님으로, 대만불교계에서는 법고산 개산조 성옌 법사의 방장 선출을 놓고 파격적인 ‘젊은 방장’ 선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고산은 성윈(星雲) 스님의 불광산(佛光山), 외이지에(惟覺) 스님의 중대선사(中台禪寺), 쩡옌(證嚴) 스님의 자제공덕회와 아울러 대만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불교단체다.

성옌 법사는 이 같은 방장 선출배경에 대해 “궈똥 법사가 비록 법고산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출가 후 10년 넘게 삼보에 대한 신심과 구도심이 강하고 스승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는 출가자”라고 설명했다.

대만불교계는 특히 성옌 법사의 방장 선출방식이 철저하게 불교전통법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법고산 방장 선출이 승단대표에서 후보자 5인을 선출해, 성옌 법사가 1명을 선발, 마지막으로 승단대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면 방장으로 임명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옌 법사의 12명 전법제자, 즉 법자(法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법에 논하고, ‘과연 법 그릇의 크기가 어떤가’를 가늠해 후임 방장으로 인가하기 때문이다. 법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을 불러 법문했을 때처럼, 성옌 법사가 법을 전했을 때 있었던 제자들을 일컫는 말.

1993년부터 법고산 농선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해 성옌 법사와 인연을 맺은 궈똥 법사는 성옌 법사의 법자가 됐으며, 법고산 승단의 남성신도 부도감, 호법총회 법사 등 중요 직책을 역임했다. 또한 10년간 염불단 지도법사를 맡고 있으며, 성옌 법사의 ‘영혼 환경보호’ 이념을 봉대해 사회전통의 장례개념을 개선하고 있다.

궈똥 법사는 이날 방장 취임식에서 “방장을 맡은 후에 계속해서 많은 선인을 청해 합심 협력해 교단과 승단, 중생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삼보와 호법 신도들의 대덕 대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고산 방장이 바뀌자, 셍옌 법사의 향후 거취에도 대만불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고산 승단측은 ‘방장의 직위를 내려놓은 성옌 법사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문제에 대해 “성옌 법사는 여전히 법고산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맡을 것이고, 법고대학의 설립에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옌 법사는 이와 관련, 대만 인터넷 언론 쭝꽝(中廣)지에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법고대학 공사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교육사업을 완성해 신임 방장스님께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장에 유력시 됐던 타이페이 예술대학 총장 후이민(慧敏) 법사는 방장이 다른 일과 겸직할 수 없는 직위임을 감안해 성옌 법사가 불교연구원 등의 교육 사업에 몰두하라는 지시로 방장에 선출되지 않았다.

대만=이상미 통신원

세계 最古 응현목탑 ‘기우뚱’

건조 950주년을 맞는 중국 북부 산시성에 위치한 세계최고(最古) 목조 불탑인 응현목탑(사진)이 기울고 있다고 인도PTI 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잉시안 시에 있는 이 ‘불궁사 응현불탑’의 1, 2층 사이에 눈에 띌 만큼의 경사가 있다”며 “탑 안 300여 군데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높이가 65.86m인 이 불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탑으로, 베이징으로부터 380km쯤에 위치해 있다. 서기 1056년에 건립됐으며, 9각 형식으로 중국 고대 건축 및 목조기술의 최상위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 관료의 말을 인용, “우리는 고대 탑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목조탑 구조를 보호하고 보수 계획을 준비하는 특별 기구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또 “응현목탑 건립 950주년 기념식이 9월 5일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 3만여 명이 운집했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달라이 라마 ‘법학’ 주제 강연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법학(law)’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미국 UB뉴스센터가 전했다. 9월 21~22일 이틀간 미국 버팔로 대학 법과대학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의 제목은 ‘법과 불교, 사회변화-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달라이 라마는 이날 강연회에서 ‘불교가 법과 사회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법조계 인사 및 학자들과 헌법의 사회질서유지 기능, 범죄자 처벌의 목적, 법원의 결정과 업의 결과 등에 관해 다양한 토론을 벌인다.

한-베트남 신랑신부 9쌍 결혼식

옥천 대성사, 인연맺기 결실

옥천 대성사의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 제2차 한-베트남 인연맺기 행사가 또한 번의 결실을 맺었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베트남을 방문, 9쌍의 선남선녀 결혼식을 올려줬다. 지난 5월 베트남 여성과의 첫 결혼을 성사시킨 이후 두 번째.

특히 이번 결혼을 위해 베트남 현지 관음사 주지 정묵 스님과 신도, 베트남 교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 9쌍의 한-베트남 부부를 탄생시켰다.

혜철 스님은 주례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신랑신부의 만남을 통해 양국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 가운데 한명인 조성태(38)씨는 “다른 나라 신부를 맞는다는 것이 무척 망설여졌지만, 사찰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라 더 믿을 수 있었다”며 “신부가 입국하는 12월까지 베트남어와 베트남문화를 공부해 신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낯선 나라에서 결혼생활을 해야 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고충을 풀어주기 위한 해결책도 마련된다.

대성사는 베트남 스님을 초청해 베트남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한-베트남 부부들의 법회 참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중국불교 변화 어떻게 볼것인가

철저한 실리 추구 … 티베트 독립 막으려 불교 이용

‘국가불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보 주목해야

지난 4월 중국에서는 세계 30여 나라에서 온 불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불교포럼’ 제 1차 대회가 열렸다. 중국 불교계가 제안하고 주최하였다고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있었다는 데 대하여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 시점에서 왜 대규모 국제 불교 행사를 주최하는지에 대해 필자는 이미 이 난을 통해 “중국 정부의 불교 정책 변화는, ‘사회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고 불교가 필수가 된 현실 상황’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고 진단한 바 있다. (‘현대불교’ 4월 19일자)

우리 불교계도 위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 불교가 발전하고 있다”며 환영하고, 불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런 추세는 단순하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조계종 포교원이 중국 내 한인불자들을 위한 수계 법회를 열면서 포교원 소임자스님 여섯 분이 모두 방중(訪中)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중국 정부의 우호적 태도’에 감동을 받은 듯이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에서는 ‘세계불교포럼’을 주관한 실무 책임자인 중국종교사무국 예사오원(葉小文) 국장을 초청해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특별한 조치까지 취하였다.

어느 학자는 “과거 중국에서 전해 받은 불교를 이제 우리가 다시 중국에 전해주어야 할 때”라며 한국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중국 포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국 포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종교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느 곳에서도 종교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100% 자유롭기는 힘들겠지만 특히 중국에서는 과거 왕조 시절과 다름없이 국가에서 종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세계불교포럼’을 통해 중국 정부가 ‘화합과 관용’을 강조했지만, 이 포럼 이후에도 여전히 자국의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처벌을 계속하고 있다.

9월 7일 UNPO통신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중국 시추안(四川) 성 서남부 티베트인 거주지역인 카르제(Karze)에 있는 초캉 타크룽(Chokang Taklung) 사원의 주지 켄포 진파(Khenpo Jinpa)가 구금되었다.

8월 23일 무장 경찰들이 예고 없이 사원 안으로 들어와 샅샅이 뒤졌지만 범법 사실을 증명할 물증을 찾지 못하였다. 궁색해진 당국에서는 ‘구금 사실’만을 확인할 뿐 구속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티베트 사원의 관계자들이 “1년 전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게시하였던 것”이 구금 사유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중국의 불교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국가불교’적 성격에 철저하게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격은 불교에만 그치지 않고, 이슬람이나 가톨릭 등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티베트 독립과 자치를 막는 데 ‘불교’를 쓰고, 위구르 족 등 이슬람교도들의 독립을 저지하는 데에는 ‘이슬람’을 활용할 것이다.

‘한국 스님들에 대한 복수 비자 적극 검토’나 ‘도의(道義)선사 수계지(受戒址) 성역화 불사 지원’ 등 한국불교계에 대한 러브콜은 티베트문제 해결과 몽골 등 주변 불교국가에 대한 견제에 필요한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외교 전략의 일환이거나 한국 불자들의 성지 순례를 유도하려는 관광정책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불교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합종(合從)’ ‘연횡(連橫)’이든 아니면 제 3의 길이든 우리 나름의 중장기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자유기고가

108산사에서 108배로 108번뇌 씻는다

▲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禪默 慧慈) 스님.

일심광명(一心光明)으로 신심(信心) 다지고 소원성취 발원

선묵 혜자(禪默 慧慈)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山寺) 가슴에 담고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와 함께 떠나십시오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가 성지순례 기도법회의 새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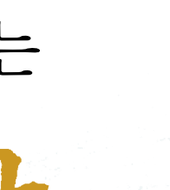
산사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세월을 머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조물,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는 108산사를 찾아 염불과 기도, 108참회, 축원,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 발원문, 동참불자에 낙관, 해당 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 보시 등을 봉행할 것입니다.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가 찾아 갈 108산사

●각원사 ●갑 사 ●개심사 ●거조암 ●견봉사 ●경국사 ●고란사 ●고산사 ●고운사 ●관음사 ●관음암 ●관촉사 ●광덕사 ●구룡사 ●금땅사 ●금산사 ●기림사 ●김룡사 ●낙산사 ●내소사 ●내원사 ●내장사 ●대승사 ●대전사 ●대흥사 ●도갑사 ●도리사 ●도선사 ●도안사 ●동학사 ●동화사 ●마곡사 ●무량사 ●무위사 ●문수암 ●백담사 ●백련사 ●백양사 ●범어사 ●법주사 ●법흥사 ●보경사 ●보광사 ●보덕사 ●보리암 ●보문사 ●봉녕사 ●봉선사 ●봉암사 ●봉은사 ●봉정사 ●봉정암 ●부석사 ●분황사 ●불국사 ●불암사 ●불영사 ●삼화사 ●상원사 ●석굴암 ●석남사 ●선본사 ●선운사 ●송광사 ●수덕사 ●수도사 ●신륵사 ●신원사 ●신흥사 ●실상사 ●쌍계사 ●안국사 ●연곡사 ●연주암 ●영국사 ●오어사 ●옥천사 ●완주 송광사 ●용덕사 ●용문사 ●용연사 ●용주사 ●운문사 ●운주사 ●월정사 ●은해사 ●자재암 ●장곡사 ●전등사 ●정암사 ●제주 관음사 ●조계사 ●지지사 ●천은사 ●청암사 ●청평사 ●칠장사 ●통도사 ●파계사 ●표충사 ●해운사 ●해인사 ●향일암 ●현등사 ●화계사 ●화엄사 ●흥국사 ●희방사

▶문의 및 접수 : 삼각산 도선사 종무소(☎02-993-3161)

●선묵혜자(禪默 慧慈)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마 出刊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선묵 혜자 지음 _ 화남 펴냄 _ 정가 20,000원